

“목적없는 취업보단 본인이 원하는 일 하길”

여수해경, 베트남인 2명 구속
외국인등록증 위조 등 혐의



협동조합 '놀자' 정나는 이사

“목적 없이 취업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청년들이 광주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놀자'를 올해 3월 창립한 정나는 이사(25·여)는 목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3월 광주로 올라왔다.

'놀자'를 만들기 전 지난 2015년부터 사회복지장작소에서 활동했던 정 이사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전공 살려 수익창출 중학생들에 수업·봉사 활동 즐거움 나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에서 실습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 그는 단순히 실습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재미도 함께 찾기 위해 같이 실습하던 학생·직장인들과 함께 사회복지장작소터를 차렸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던 것은 '인사나눔 캠페인'이었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요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안타까웠다는 그는 무작정 아파트단지로 찾아가 자조지중을 설명한 뒤 인사를 나눴다.

인사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정자 등에서 이웃들과 매실을 담그기

도 했고, 엘리베이터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직접 담근 매실로 만든 음료를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이웃들도 몇 달간 계속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던 그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꿈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 자율학기 수업으로 들어가 마음껏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노는 법을 알려주는 '플레이코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취업시즌이 다가오자 압박감을 느낀 그는 일반기업에 취직을 해봤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취업하다보



니 재미도 없고 자신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과감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정 이사는 장작소에서 경험했던 '플레이코치' 사업을 독자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다. 사업구상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온 그는 1년이 지난 올해 3월 초 '놀자'라는 이름의 협동조합을 설립, 이사직을 맡게 됐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만들어보는 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림·미술·음악 등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자신들의 꿈을 찾아간다.

정 이사는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마음껏 하고 싶은 수업을 직접 만들어보자’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무조건 어른들이 말하는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 사립교사 위탁채용 무산

수차례 공동전형 업무협약의 불구 이견 못 좁혀

광주시교육청과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 중등교사 채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중심으로 공동 전형을 시행 반면, 사학은 자율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적잖아서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사학협의회측 2020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동 전형 수요조사를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사학법인협회는 공동 전형을 위한 업무협약을 수차례 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사학협의회측이 요구한 공립과 사립 임용시험을 같은 날 실시할 것과 1차 시험을 주관식 위주에서 '60% 객관식'으로 변

경하는 동시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시키지 않는 조항을 시교육청이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중심으로 공동 전형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8월 말까지 법인별 선발인원 수요 조사를 하고 10월 공동전형 요강을 공고한다. 오는 12월 14일 시교육청에서 주관해 1차 시험을 진행하고, 5~6배수 합격자를 해당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내년 1월에는 2차 수업실연과 3차 심층면접을 학교법인에서 진행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2·3차 전형에서는 평가위원 5명 중 1명 이상을 교육청에서 각각 추천하게 된다. /조기철 기자

화순군 공무원 2명 구속...관급공사 수주 대가 '금품수수'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순군청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18일 화순군 A과장(5급)과 B실장(5급) 등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A과장 등은 화순군이 발주한 산림사업과 관련해 화순군산림조합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민 기자



'열흘간의 나비떼' 관람

육군 보병학교 학생 장교들이 1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5·18 민주화운동 서사를 담아낸 전시 콘텐츠 '열흘간의 나비떼'를 관람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찬반 팽팡'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공론화 수순 밟나

광주 상무중·치평중 통폐합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 지적을 쌓기 위한 학교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통폐합 명분

으로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내세우지만, 상무중과 치평중은 교육부가 정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추진 권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 교사노조는 찬성 입장이다. 교사노조는 "상무중과 치평중은 사자를 두고 개교했지만,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대로 운영한다면 먼 거리 통학학생이 생기게 돼 학교 재배치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팽팡한 찬반구도에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시교육청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기철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빌려준 뒤 돈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로 베트남인 A씨(33)와 동거녀 B씨(32)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베트남 불법 체류자에게 60만원을 받고 본인의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 혐의다. A씨 등은 베트남인 45명을 선원이나 양식장, 유휴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해 고용주로부터 1인당 5만~15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검찰,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매입한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는 손 의원이 조가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연철뉴스

절도 당시 옷 입고 배회하다 벌미

○...절도행각을 벌이던 당시 입을 옷을 입은 채 경찰서 인근을 배회하던 40대 노숙인이 벌미가 잡혀 철창행 신세.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면강 모씨(47)는 지난 4일 오후 4시 2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교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카드로 편의점에서 먹을거리 등 14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절도 등의 전과만 41범에 달하는 노숙자 강씨는 범행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경찰서 인근을 배회하다 형사들에게 붙잡혔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면서 "결국 본인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왔던 것이다"고 실소.

/이나라 기자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8억 8천만원